

경남, 조선·해양산업 AI 전환 속도… 글로벌 기술거점 발돋움

K-조선 비전·예산안 적극 대응
선박 가공 공정 자율제조 기술 검증
부산·울산·전남 등 지역협력 확대

경남도는 정부의 'K-조선 미래 비전'과 2027년도 예산안에 발맞춰 경남을 조선·해양 산업 인공지능(AI) 전환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기술 선도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5월 13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김정관 산업부 장관,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진 강화 ▲시장 확대 ▲상생 생태계 구축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조원을 투자해 설계·생산·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자율 운영 AI 조선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조선소 생산성을 공 정별 최대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내 뒀다.



K-조선 초광역 협력벨트.

/경남도

2027년 예산안에도 제조업 AI 대전환을 위한 자율 제조 생태계 구축, 지역주도 5극 3축 성장 엔진 프로젝트, 제조안목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 중소 제조 기업 퍼지컬 AI 실증 등이 반영됐다.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대형·중소형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이 밀집한 경남은 조선·해양 사업체 2633개, 종사자 5만 2562명을 갖춘 국내 최대 조선 산업 거

점이다. 수출액은 70억 9000만달러이며 올해 7월 기준 수주잔량은 국내 전체의 46.4%를 차지한다.

도는 이 같은 기반 위에 조선·해양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역량을 집적해 '대한민국 조선·해양 제조 AI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 준공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

기술 혁신(DX) 센터를 거점으로 ▲조선 현장 압목지의 데이터화 ▲퍼지컬 AI 실증 ▲선박 가공 공정 자율 제조 기술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조선소와 중소 협력업체 간 상생 협력, 부산·울산·전남 등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디지털 조선소 시장이 올해 20억 6000만달러에서 2030년 47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만큼 조선업계의 AI 전환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경남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이자 미래 조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정부의 K-조선 미래 비전과 2027년 예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남을 조선·해양 퍼지컬 AI와 제조 AI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고, 대한민국 조선 해양 산업이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영천시

‘렛츠런파크 영천’ 정식 오픈

영천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렛츠런파크 영천’이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장식은 1만3022명의 방문객이 찾은 가운데 아리랑대무시범단과 육군3사관학교 군악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장 기념영상, 기념사와 축사, 개장기념 퍼포먼스, 기념경주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을 계기로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을 확대하고, 방문객이 지역 관광지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말산업 특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영천(경북)=김진곤 기자

학교법인 성지학원

권오경 부산외대 총장 선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학교법인 성지학원이 부산외대 제12대 총장으로 권오경(64·사진) 한국어교육전문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오경 신임 총장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 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국문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 부산외대에 부임한 뒤 입학홍보처장, 기획처장, 교학처장,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대학 행정 역량을 쌓았고, 교내 주요 혁신 과제도 이끌어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김해시

‘비크릿 바랏 2047’ 비전 동행

주한인도대사관과 김해시가 지난 12일 김해시 연지공원에서 ‘비크릿 바랏 런 2026(Viksrit Bharat Run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거주 인도인과 한국인 참가자들이 함께 달리며 건강과 우정을 다지고, 인도가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7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 비전 ‘비크릿 바랏 2047’을 알리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고령달라스 주한인도대사와 정영두 김해시장을 비롯해 민홍철·김정호 국회의원,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 서동신 김해시체육회장, 김영립 가락김해시종친회장, 국내 거주 인도인과 김해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칠곡군

제65회 칠곡국민체육대회 성료

칠곡군은 지난 12일 칠곡종합운동장에서 8개 읍·면 주민 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5회 칠곡군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낙하산 이어달리기와 비전풍선탑 쌓기, 협동배구, 파크골프 다트 퍼팅 등 명랑운동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하늘높이솟과 게이트볼도 열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북도가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영남대학교,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새마을재단과 '새마을세계화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새마을세계화 사업’ 영토 확장

베트남서 경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현지 대학 등 사업협력 MOU 체결

경북도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글로벌 새마을 경제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경제·문화 분야 국제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한 교류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과 김일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관태환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이영석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베트남 지방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이날 시범마을 생산품 전시와 대구경북 기업 홍보부스를 통해 사업 성과와 경제 분야 연계 가능성도 선보였다.

경북도는 영남대학교,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새마을재단과 '새마을세계화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 경제·문화·교육 분야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대표단은 현지 경북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상 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대영전자 베트남법인을 찾아 생산 현장과 운영 현황도 살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외국인 관람객 55% ↑

경북문화관광공공 입장수익 34% 증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올해 1~7월 경주엑스포대공원 관람객이 21만4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18만8000여 명보다 13% 증가하고, 입장수익은 14억3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0억7100만 원 대비 34%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람객은 40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증가했다. 공사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경주의 국내외 인지도와 관광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이 실제 방문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원 자체 콘텐츠도 관

람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 지난 5월 'EX PO-REST 어린이 북크니'에는 책과 공연,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3일간 1만여 명이 찾았으며, 8월 운영한 공포 체험 콘텐츠 'EX-HORROR'에는 24,857명이 방문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지난해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관광 경쟁력이 올해 실질적인 관광 수요와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야간형 콘텐츠부터 공연·축제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여 경주엑스포대공원이 국내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장관상

‘부산형 AI서비스 구축·고도화’ 발표

부산시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 정부의 인공지능(AI)·디지털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여는 행사로, 올해는 제주에서 열려 전국 15개 시·도가 출품한 사례 가운데 서면·국민심사 등을 거쳐 8건이 본선에 올랐다.

대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재난 상황 전파 시간을 대폭 줄인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경남 김해시가 AI 에이전트 기반 플랫폼으로 각각 본선 무대에 오르는 등 지방 정부의 다양한 AI 활용 사례가 함께 소개됐다. 부산시는 '부산형 AI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형 AI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

용해 행정지식 질의응답, 문서 초안 작성, 외부 자료 검색·분석, 예산 업무 지원 등을 지원하며 내부 행정 자료와 연계한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부산시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해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자체 AI 모델을 구축하고 행정 규정·사례·지역 정보 등 약 16만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으며 현재 전 부서 약 6000명을 대상으로 문서 작성, 정책·보고서 초안 작성 등 총 22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남식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수상은 부산시가 AI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형 AI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금오공대, ‘초광역 인재육성사업’ 주관

구미시 전략산업 인재 확보 기대

구미시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교육부 공모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대경권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초광역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교육을 취·창업과 지역 정주,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가 주관하고 대구가 참여하는 대경권 컨소시엄은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8개 대학과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국비 6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AI 제조

로봇 분야 융합인재 3000명을 양성한다. 참여 대학들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연계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취업과 창업, 지역 정주까지 연결하는 초광역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오공대는 반도체와 AI 제조로봇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대학 및 기업과 협력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5극 3축 대경권 성장전략과 연계해 지역 대학·산업·지자체 역량을 초광역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의 교육·산업 역량을 대구·경북권으로 확장하고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